

# 한화, 텍사스 대형유전 지분 확보

미국 O'Ryan Oil과 지분 계약 ... 추가 개발해 하루 3000배럴로 확장

한화 무역부문은 텍사스 지역의 대형 유전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한화는 미국 O'Ryan Oil & Gas와 맺은 생산광구 지분양수도 계약이 7월15일자로 발효했다고 밝혔으며 투자액은 약 3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유전에서는 하루 1100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추가 개발을 통해 2011년까지 하루 3000배럴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화 무역부문은 3년 전부터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카타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 예멘 4개 광구 개발 사업, 미국 멕시코만 가스 탐사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16>